

# ON

## 조선 선비문화

Joseon Seonbi Culture ON  
Jeonju National Museum Magazine

Vol 08. 2019

조선 선비문화 전시 미리보기 선비, 전복 서화계를 이끌다  
국민들이 존경하는 조선 선비 다산 정약용, 실사구시 학문





## “겸손과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 선비정신

국립전주박물관장 천진기

# ON

## 조선 선비문화

Joseon Seonbi Culture ON  
Jeonju National Museum Magazine

Vol 08. 2019



### 표지 설명

포도 墨葡萄圖 Grapes and Squirrel

서병표 徐丙表 (1867~?)

조선 朝鮮 19세기말~20세기초

견본채색 絹本彩色, 국립전주박물관

호남의 3대 명필, 호산湖山 서홍순徐弘淳의 손자 서병표가 그렸습니다. 1917년에 완성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서화가 1,117명에 대한 한국 최초의 서화인명사전 『근역서화장권域書畫徵(吳世昌 著)에 “서홍순의 손자 호운湖雲은 글씨에 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6폭 병풍 2틀로 구성되었고, 화면 가득 포도 줄기를 표현하였습니다. 병풍 상단에서부터 시작된 포도 줄기는 병풍을 가로질러 울동감 넘치는 곡선을 이루며 뻗어 내려오고 있으며, 중간 중간에 다람쥐가 그려졌습니다.

### 목차

#### 03 선비문화 에세이

“겸손과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 선비정신 | 천진기

#### 04 조선 선비문화 전시 미리보기

선비, 전복 서화계를 이끌다 - 석정石亭 이정자李定稷(1841~1910) | 민길홍

#### 06 조선 선비문화 전시 다시보기

편지로 선비를 보다 | 박혜인

#### 10 국민들이 존경하는 조선 선비

다산 정약용, 실사구시 학문 | 정대영

#### 12 학술 광장

조선시대의 서적 선비의 책장 | 이해정

충의忠義의 선비 김해와 참된 선비(眞儒) 김부필의 추증 이야기 | 노인환

19세기 전주의 모습, 완산부지도 | 정대영

#### 22 박물관 풍경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전 | 김왕국

선비문화 아카데미 이야기 | 정대영

“새롭게 선보이는 전복의 보물” 국립전주박물관 지정문화재 특별공개 | 민길홍

“생활 속의 박물관을 꿈꾸다” 국립전주박물관회 창립 | 김왕국

전통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예의와 도덕, 생업기술 등은 일상적인 생활현장에서 체득한다. 그 현장이 밥상머리이다. 특히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하는 밥상머리 교육은 인류 최고의 교육방식이다. 부자父子는 겸상하지 않아도 할아버지-손자祖孫은 겸상이 가능했다. 손주는 할아버지 상에서 숭가락질, 젓가락질을 익히고 밥 먹는 예절을 배운다. 이 겸상에서 사람의 도리와 예절을 가르치고 배웠다. 손주는 어른이 숭가락을 들고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보조를 맞추고, 나아가 상대보다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익히게 된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맛난 음식을 권해주면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이룬다. 자식은 가르치다 보면 역정이 나기 일쑤지만 할아버지는 손자의 실수도 너그럽게 넘기며 인자하게 가르칠 수 있다. ‘밥상머리’ 교육은 할아버지와 어린 손주가 얼굴을 가까이 마주하고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법의 교육방식이다.

몇 백년을 이어오는 종가에는 훌륭한 가르침이 있다. 안동 영천이씨 종가는 농암 이현보 선생의 ‘애일당愛日堂’과 종가에 걸린 선조 어필인 ‘적선積善을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다. 애일당은 “날을 아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뜻이고, 적선은 “착한 일을 하는 집안에는 항상 경사가 있다”는 가르침이다. 부모에 대한 효,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안동김씨 목계종가에는 ‘지신근신 대인충후持身謹慎 待人忠厚’, ‘오가무보물 보물유청백吾家無寶物 寶物惟清白’ 현판이 걸려 있다. ‘지신근신 대인충후’는 ‘몸가짐을 삼가

고, 남을 대할 때 진실하고 온순하라는 의미로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인다는 것이다. ‘오가무보물 보물유청백’은 ‘우리 집안에는 보물이 없으니, 보물은 오직 청백清白일 뿐이다’라는 뜻이다. 목계종가에서는 이 현판을 보면서 선조의 뜻인 겸손과 배려, 청백을 가슴 속에 새기고 대대로 실천해 오고 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경주최씨 부자집의 육훈六訓과,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열어서 쌀을 가져 갈 수 있게 쌀뒤주에 ‘타인능해他人能解’라고 새긴 구례 운조루 문화류씨 쌀독에서 ‘나눔과 배려[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을 만날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오는 종가의 가정교육은 자녀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목표를 두고 있다. 종가의 교육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드는데 중심을 둔다. 어머니 뱃속에서, 집안에서, 마을에서 ‘겸손과 배려, 나눔’을 마음으로 새기며 실천하는 인성을 키운다. 그 인성을 바탕으로 지식이 더해지면 오로지 오롯한 선비와 선비정신이 된다. 겸손과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 지식인, 그런 선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

이제 선비와 선비정신에 대한 우리 시대의 왜곡과 편견을 견어내고 새로이 탐구하고 구현해야 한다. ‘겸손과 배려, 나눔’이라는 선비와 선비정신을 현대에 다시 불러내어 오늘날의 새로운 가치관과 자신의 생활 지침으로 삼는다면, 풍요로운 정신문화를 이룩하는 데 해법이 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선비문화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한다.

#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1841~1910)

기간 | 2019. 9. 10(화) ~ 11.24(일)

장소 | 국립전주박물관 시민갤러리



매화와 국화(梅菊圖) 개인 소장

19세기말~20세기초 혼란한 시대에 전북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던 융합형 인재, 석정 이정직이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았는지, 그의 예술 활동을 통해 과거의 이정직과 소통하고자 한다.

글. 민길홍(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대나무(竹圖)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격동의 시대라 불리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을 살았던 전북지역의 선비,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1841~1910)의 이야기다. 1841년 6월 3일에 태어난 이정직은 4살 때 천자문을 배우는데 하루에 수십 자를 익혔고, 9살에 『통감通鑑』 12책을 읽은 이후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십대에 주역周易, 중용中庸, 대학大學 등을 배웠다 한다. 화가로서의 재능도 뛰어난 5살 때 재미삼아 엽전을 종이에 옮겨 그렸는데 실물과 대조해보니 가로세로와 앞뒤가 꼭 같았다 한다. 뛰어난 재능 뒤에는 남다른 성품이 숨어 있었다. 본래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여, 동네에 사나운 자가 있어도 부드러운 말로 달래어 감복했다고 하며, 인근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들으면 반드시 가서 돌봐주었다. 학문과 예술로 후학을 기르는 한편, 이처럼 동네에서도 주민들을 어우르는 어르신이었다.

그러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전주 일대에서 일어났고, 당시 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던 이정직은 수십년간 저술했던 자신의 글을 화재로 모두 잃게 된다. 그 후 김제로 돌아와 당호를 '백석산방白石山房'이라 짓고, 서실의 이름을 '호서실好書室'이라 하였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책을 좋아하고 영특했던 일화가 많은데, 그러한 성장 과정과 타고난 기질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현재 남아있는 그의 그림과 글씨 가운데, 호서실에서 그리고 썼다고 밝히고 있는 유물이 많다.

앞 시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처럼 이정직은 중국 서예의

맥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단순히 모양을 베껴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및 조선 명필가의 글씨를 수없이 임서臨書하면서 골자를 터득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두루두루 배우고 통달했던 선비 이정직은 마땅한 관직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28세에 중국 연행燕行에 동행하여 중국 학자들과 교류하며 지식의 폭을 넓혔고, 그 후 지적 호기심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학문적 경향에 누구보다 일찍 발을 들이게 된다.

오늘날 사회는 '융합형 인재'를 추구한다. 이제 전문가 시대를 넘어서서, 통섭과 융합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천문, 지리, 의약 등 두루두루 통달한 유학자라는 의미의 '통유通儒'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그림과 글씨는 이정직 인생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가 섭렵한 많은 경전과 학문, 철학에 비하면, 그림과 글씨는 잠깐의 여가 시간을 할애하여 머리를 식혔던 취미 활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물은 시각적 자료로서 유고遺稿 외에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의 그림과 글씨에서부터 그를 이해하는 발걸음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전시를 통해, 19세기말~20세기초 혼란한 시대에 전북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던 융합형 인재, 석정 이정직이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았는지, 그의 예술 활동을 통해 과거의 이정직과 소통하고자 한다.



국립전주박물관은 2019년 4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특별전 <선비, 글을 넘어 마음을 전하다>를 개최했다. 전시에서는 개인의 기록물이었던 '편지'를 통해 선비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담았다. 특히 선비들의 감정이 드러나는 감성적인 편지글을 한데 모아 선비들의 우정, 지식에 대한 따스한 애정, 아내에 대한 극진한 사랑 등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글. 박혜인(전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편  
지  
로  
  
선  
비  
를  
  
보  
다



조선시대 서간문화

지금도 누구나 자유롭게 한글로 편지를 쓰지만 조선시대에 서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한문을 상용할 수 있는 상류층에 국한되었다. 서간에는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였으며 사회적 상호위계관계에 따라 그 법식이 규정되었다. 따라서 서간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18세기 이후에는 서간 쓰는 방법을 담은 서적인 '간찰서식집(簡札書式集)'이 유행하였다.

17세기 이후에는 편지를 모아 하나의 서간첩으로 만드는 경향이 엿보이며, 18세기에 이르러 '척독(尺牘)'이 유행한다. 척독은 짧은 편지로 기존의 서간양식에서 탈피하여 매우 사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던 편지였다. 척독은 매우 짧은 글이지만

문학성이 높고, 기존의 문체에서 탈피하여 더욱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준다. 또한 19세기에는 시전지(詩箋紙) 문화가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시전지를 향유하였고, 특히 19세기 이후 청나라에서 시전지가 유입되어 더욱 다양한 색채와 문양의 시전지가 제작되었다.

그대는 여장을 풀고 안장을 푸시지요, 내일은 아마도 비가 올 듯 합니다. 시냇물은 우는 소리를 내고, 물에선 물비린내가 나는군요. 섬돌까지 개미떼가 밀려듭니다. 황새는 울면서 북으로 들고, 안개는 서리어 땅 위를 내달립니다. 유성(流星)은 화살처럼 서편으로 흘러가고, 바람은 동쪽으로 불어옵니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길을 떠나려는 유한준(俞漢準, 1732-1811)을 만류하는 편지

선비의 우정을 담은 편지

조선 선비들의 우정은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초의선(草衣禪師, 1786-1866)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편지에서 김정희는 아픈 몸으로 자신을 보기 위해 제주까지 온 초의선사에게 몸이 아프니 자신을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적고 있다. 18세기가 되면 북학(北學)이 대두되며 조선 선비들과 중국 문인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첫 문을 연 것이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이었다. 홍대용은 연행에서 중국 문인 엄성(嚴誠), 반정균(潘廷均), 육비(陸飛)와 만나 필담을 나누며 교류하였고, 이들의 편지는 홍대용의 귀국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한편 조선 선비와 중국 문인들과의 교류는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시문(詩文)만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중국 문인 주문조(朱文藻)가 홍대용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주문조는 홍대용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편지에서 엄성과 같이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느냐며 교류를 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조선·청나라 문인들의 교류는 19세기, 김정희를 비롯한 추사파(秋史派)까지 지속되었고 편지와 함께 서화를 주고받아 조선·청나라 서화교류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 아픈 곳이 더 심해져 차도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배객의 손님이니 치료가 여의치 못하다는 알기에 걱정스런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절대로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돌아가십시오...오로지 뚝단배가 순풍을 따라 물에 다다른 기를 기원할 뿐입니다.(후략)

김정희가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

… 오늘 그대와 만나지는 못했어도 편지를 보내드리는 것은 마음속 간절함에서 우러난 것입니다…저는 학문과 식견이 철교鐵橋(엄성)만 못합니다만 학문을 좋아하는 뜻만큼은 만분의 일이나마 미칠 수 있으니 혹시 그대가 철교를 사랑하듯이 저를 사랑해주실 수 있으신지요?(후략)

주문조가 홍대용에게 보낸 편지

… 보내주신〈설옥도雪屋圖〉는 오묘한 그림으로 원나라 화가들의 진수를 충분히 터득하였으며, 이인상李麟祥(1710-1760)의 화책畵冊은 명나라 대가大家들과 매우 가깝습니다…별단別單(물품 목록)을 보냅니다. 편안히 잘 지내신다는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란亂帖 글씨와 시를 쓴 부채詩扇을 보내니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후략)

장심이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

### 선비의 애정을 담은 편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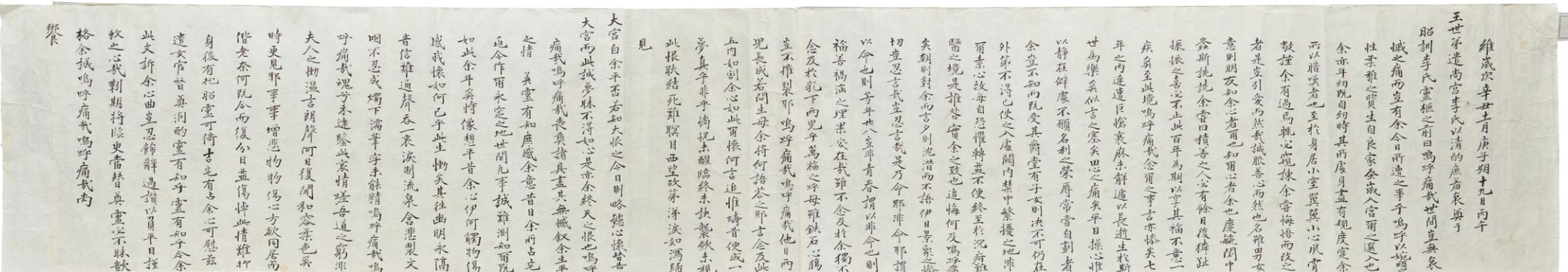
조선 선비들은 아이들에게 매우 다정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는데, 선비들이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 보면 자신의 공부법을 알려주며 과거시험에 힘쓰라는 내용이 많다. 또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홍씨부인에게 받은 치마를 잘라 아이에게 보낸 서첩인 《하피첩霞被帖》과 딸에게 보낸 《매화병제도梅花併題圖》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드러난다. 정약용은 폐족廢族이 되어 공부를 멀리할 아들을 걱정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하피첩》에 담아 보냈고, 시집가는 딸에게는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는 시를 《매화병제도》에 담아 보냈다. 또 박지원은 안의(현 함양군)현감으로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고추장을 담그고 장조림을 만들어 편지와 함께 보내기도 한다. 다음 편지에서는 고추장 맛이 어떠한지를 묻기도 하는데, 아이들에게 한없이 사랑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 진실로 바라건대 너희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다름없이 항상 마음과 기상을 화평和平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하늘의 이치는 순환하니, 한 번 넘어졌다고 일어설지 않을 것은 없다(후략)

하피첩



연암선생서간첩燕巖先生書簡帖  
중이, 조선 19세기 이후, 46.5×28.7cm, 서울대학교박물관



영조가 쓴 소훈 이씨 제문祭文李氏祭文  
조선 1721년, 종이, 31.0×176.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고추장 작은 단지 하나를 보내니 사랑방에 두고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을 게다. 내가 손수 담근 건데 아직 푹 익지는 않았다.  
… 전후에 보낸 쇠붙이 장북이는 잘 받아서 아침저녁에 반찬으로 하니? 왜 한 번도 좋은지 어떤지 말이 없니?…고추장은 내 손으로 담근 것이다. 맛이 좋은지 어떤지 자세히 말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두 물건을 인편人便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겠다(후략)

연암서간첩

### 남편이 아내에게

조선 선비들은 아내에게 매우 극진했다. 특히곽주郭澍(1569-1617)의 한글편지에서는 딸을 낳아도 서운하게 여기지 않으며, 산기産氣가 시작되거든 사람을 보내라는 내용, 아내의 산후조리를 걱정하는 내용 등이 엿보여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준다. 또, 김정희가 아내에게 쓴 한글편지에서는 아내의 병을 걱정하며 자주 안부편지를 보내달라는 내용, 기생 죽향과의 스캔들을 부정하고 아내를 안심시키는 모습 등이 엿보여 김정희의 다정다감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동시에 선비들이 죽은 아내를 위해 쓴 제문祭文을 살펴보면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을 더욱 절절히 느낄 수 있으며 슬픔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영조英祖(재위: 1724-1776)가 자신의 후궁인 소훈 이씨淑嬪李氏(훗날 정빈靖嬪)으로 추증)를 잃고 쓴 제문은 왕세제王世弟이기에 앞서 인간이었던 영조의 깊은 슬픔을 보여주며 소훈 이씨에 대한 깊은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부디 산기가 시작하면 사람을 즉시 보내소. 비록 쉽게 낳을지라도 부디 사람을 보내소. 남자 종이 없을지라도 여자 종을 보내나마나 즉시 즉시 보내소. 기다리고 있겠네.…비록 딸을 또 낳아도 절대로 마음에 서운히 여기지 마소.(후략)

현풍곽씨 편지

… 당신이 다른 의심을 하고 있는 듯하오. 이집이 편지에서 쓴 것은 다 거짓말이니 곧이듣지 마오. 참말이라 하면 이제 머리 허연 나이에 그럴 것에 거리낄 리 있겠소. 우습소.(후략)

김정희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

… 명분은 비록 남자와 여자였지만 그 뜻은 곧 벗이었으니 내 마음을 아는 이는 그대였고 그대의 마음을 아는 이는 나였습니다.…말과 생각이 이에 이르니 오장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내 마음이 이와 같은데 그대의 마음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슬픔을 머금고 글을 지으니 목이 매어 차마 완성할 수 없고 촛불 아래 붓을 적시지만 글자도 제대로 쓰지 못하겠습니다.(후략)

소훈이씨제문

지금까지 특별전 〈선비, 글을 넘어 마음을 전하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글쓴이의 모든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선비들은 편지 속에 애뜻함, 그리움, 애정, 사랑, 슬픔 등을 담아냈다. 전사와 글을 통해 선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며 지금, 문득 생각나는 이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 조선시대의 서적 선비의 책장

조선의 선비들의 책사랑은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명나라 진계유는 중국으로 사행을 온 조선인들이 지극 정성으로 서적을 작성하여 조선에 없는 서적을 찾아 구입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 이혜정(한국학중앙연구원)



맹자안해(孟子安海)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선비들의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있었을까요? 성리학에 대한 어려운 철학서들이 즐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문을 연마하기 위한 성리학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요.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 다르겠지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주역』, 『시전대전』, 『서전대전』 등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거 시험을 위한 기본서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서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서적이 선비들의 책장에 있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의 글을 묶어 책으로 엮은 문집, 가계가 그려진 족보, 한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류, 각종 역사서, 위인전, 의학서, 불교 서적, 풍수지리서, 간찰 서식집, 소설, 서첩류, 무술과 관련된 서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서적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분이나 당파, 살고 있는 지역, 정체성 등을 파악할 수 있으니 책장에 꽂혀있는 책이 선비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적은 값이 비싸고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목판 혹은 활자로 인쇄한 서적 외에도 책을 필사하여 구비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필사를 시작한 날짜와 종료한 날짜를 서적의 처음이나 끝 부분에 기록하고, 필사한 연유도

함께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서적을 작성한 사람이나 작성된 시기, 이유 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소장한 책에는 소유주의 인장을 날인하는데, 인장에는 자신의 호와 본관 등을 새깁니다. 인장은 주로 본문이 시작되는 장의 오른쪽 하단에서 위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날인합니다. 원 소장자의 인장이 이미 날인된 경우에는 그 위쪽 여백에 날인합니다.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책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인장이 아래에서 위로 나란히 날인되기도 합니다. 날인되었던 원 소장자의 인장이 종이 채로 잘려나간 흔적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소장했던 서적의 판매를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인영과 함께 본문의 글씨도 오려진 경우에는 종이를 덧대어 잘려나간 글자와 동일하게 필사하기 때문에 본문을 읽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원 소장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집니다.

조선의 선비들의 책사랑은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명나라 진계유는 중국으로 사행을 온 조선인들이 지극 정성으로 서적을 작성하여 조선에 없는 서적을 찾아 구입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행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남긴 연행록에는 어떤 서적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

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정조는 청나라에서 중국 역대 주요 전적을 대부분 수록하고 있는 『사고전서四庫全書』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청나라로 가는 사절단에게 구해올 것을 청할 정도로 외국에서 간행된 서적에 대한 관심도 깊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전서四庫全書』 대신 5,000책에 달하는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을 은 2,150냥을 주고 구입해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창덕궁의 개유와에 보관하였는데, 보관 전에 중국 책을 조선식으로 보수하였습니다. 중국 책은 조선 책에 비해 겉표지가 얇고 책이 가벼웠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중국 책을 수입한 다음 두껍고 튼튼한 조선식 겉표지로 바꾸어 새롭게 장황하였습니다. 새롭게 개장한 표지에는 조운형이 한 달 동안 서명을 필사하였다고 합니다. 조운형은 명필가로 평소에도 글씨를 얻으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덕무는 조운형에게 '도서집성'을 써달라고 요청했고, 조운형이 이유를 묻자 5,022번이나 썼으니 왕희지의 글씨보다 더 낫지 않겠냐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책의 표지를 새롭게 개장한 것은 『도서집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의례히 수입된 중국서의 표지를 조선식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는 책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책을 한 손으로도 들고 볼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우며 얇은 종이에 인쇄하였던데 반해 조선에서 간행되는 책은 크기가 크고 질기고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이는 서적의 판매와 가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량 판매를 위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고, 간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작은 글씨로 작성하여 분량을 줄이고 얇은 종이를 사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서적 수입이 활발해지면서 조선 후기에는 수 천책 이상 소장한 장서기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정귀, 류명천, 이하곤, 최석적, 서유구, 조병구, 윤치정 등으로 대대로 고위관료를 역임한 경화세족입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책을 기반으로 장서를 늘려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학문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서재의 이름만

으로도 학문이나 책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서유구의 서재 이름은 '필유당必有堂'으로 '오자손필유호학자품子孫必有好學者'(내 자손 중에는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에서 따온 것이며, 이하곤의 서재는 '만권루萬卷樓'인 완위각으로 여러 선비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강론이나 토론에 참조할 서적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책 수가 적으면 전체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몇 백 책이 넘어가면 관리하기 쉽지 않으므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을 별도의 공책에 작성하여 서목을 만들었습니다. 서목은 서명과 책 수를 위주로 작성하며, 작성자에 따라 특정한 규칙에 의해 작성되기도 합니다. 서가에 꽂혀있는 순서대로 혹은 책이 입수된 순서, 책의 주제에 맞게 분류하는 것 등입니다. 높은 관직을 지내 임금님께 하사받은 책이 많은 경우 별도의 항목을 두어 그 책만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서적을 내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내사본에는 책을 내려주면서 작성한 문구인 내사기內賜記와 내사한 서적에 날인하는 도장인 '내사지기內賜之記'가 날인되어 있습니다. 내사기는 책의 앞표지 이면에 작성하는데, 날짜와 이유, 서명, 받은 사람의 성명, 이 일을 담당할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공을 세우거나, 과거 시험에 우수한 성



가장서책목록家藏書冊目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적을 낸 경우 특정 서적을 내사 받습니다. 동일한 서적을 여러 번 받은 기록도 나타나지만 실물 서적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사본을 여러 부 소장하고 있었는지, 주변 지인에게 책을 나눠주었는지는 추정하기 힘듭니다.

도산서원의 광명실에는 약 4,000책이 넘는 서적을 보관하고 있었고, 관리를 위해 서목을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서책치부書冊置簿'나 '광명실전장기光明室傳掌記' 등이 남아 있는데, 전장기는 도산서원의 전유사가 후임으로 오는 이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해 물품을 적어 놓은 장부입니다. 이 장부에는 책도 포함되어 있어 어떤 책이 언제, 어떤 이유로 입수되었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도서 관리에 일정한 체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적의 표지에는 "서부득출書不得出"(책은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과 같은 문구를 필사하여 서원 내에서만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개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장서가 늘어나면 서적 관리를 위하여 서목을 작성했습니다. 박세당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정리하여 기록한 『가장서적家藏書籍』이나 송준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 목록인 『가장서적부家藏書籍簿』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도서관에서 서적을 주제별로 분류할 때 십진 분류방식을 이용하여 주제별로 책을 나누는 것과 같이 조선

시대에 사용한 주제별 서적 분류방식이 있습니다. 경부經部, 사부史部, 자부子部, 집부集部로 나눌 수 있는 사부분류 방식입니다. 경부는 성현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삼경사서와 사전류를 들 수 있고, 사부는 역사서, 가계, 지리, 어떤 사람의 연대기 등이 포함됩니다. 자부는 철학(유교, 도교, 불교 등), 의학, 무술, 예술, 술수, 백과사전 등에 해당하고, 집부는 여러 사람의 시, 문을 엮어 편집하거나 소설, 편지를 엮은 책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의 경우 사부분류 방식으로 완벽하게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한 경우는 찾기 어렵지만, 비슷한 주제에 해당하는 서적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하고 개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주제별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재에 실물 서적을 쌓아 놓은 것 외에 그림에서도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재에 있는 각종 문방구, 화분, 부채, 안경 등과 함께 서가에 책이 놓여있는 모습을 그린 책기도입니다. 실물 서적이 보관되어 있는 서재에 책가도를 걸어 장식했다고 하니 조선시대 선비들의 책 사랑은 참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전 이형목필 책가도傳李亨祿筆冊架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충의忠義의 선비 김해와

## 참된 선비(眞儒) 김부필의 추증 이야기

조선시대에 추증追贈은 2품 이상에 오른 고위 관원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 3대의 품계와 관직을 내려주는 제도이다. 관원이 2품 이상의 관직에 임명되면 국왕은 해당 관원에게 3대를 증직贈職한 추증교지追贈教旨를 내려 주었다. 추증의 혜택을 받은 가문에서는 위상이 높아지고 번성하게 되었다. 2품 이상의 관원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로 추증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경상도 예안현 외내(烏川)에 세거하였던 광산김씨 가문에서 1595년(선조 28)에 김해(金垓, 1555~1593)와 1822년(순조 22)에 김부필(金富弼, 1516~1577)이 각각 충의忠義의 선비와 참된 선비(眞儒)로 추증되었다.

글. 노인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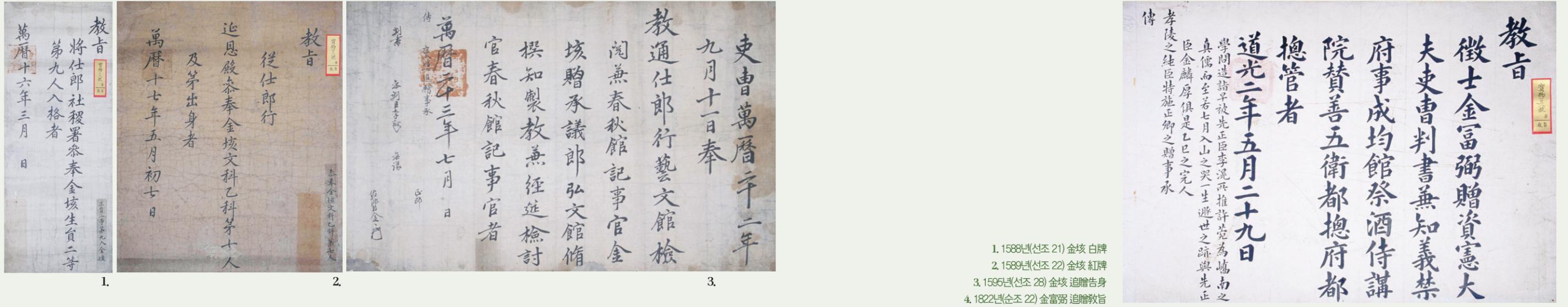
### 충의지사忠義之士, 김해의 추증

김해는 호가 근시재近始齋이고 자는 달원達遠이며, 할아버지는 김연金緣이고 아버지는 김부의金富儀이다. 1587년(선조 20)에 행실로 천거되어 광릉참봉光陵參奉에 임명되었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1588년(선조 21)에 사직서참봉社稷署參奉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에 생원사에서 2등 제9인의 성적으로 입격하였다. 다음 해인 1589년(선조 22)에 연은전참봉延恩殿參奉을 역임하면서 문과에서 을과乙科 제7인의 성적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등을 역임하였으나, 예문관검열로 재직 중에 동료들이 사초史草를 불태운 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또한 당시 기축옥사己丑獄事에 무고誣告를 당했으나 조정에서 구제하여 관직만 삭탈당하고 고향에 돌아왔으며, 이후부터 학문에 더욱 힘썼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해는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예천禮泉에 있는 왜적을 공격하였다. 당시 초유사招諭使에 임명된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이 경상도 내에 보낸 격문檄文에 김해가 답서를 보냈는데, 답서의 내용에서 왜적의 침입에 선조가 몽진蒙塵한 것을 통탄스러워 하면서 왜적의 토벌을 맹세하였다.

“... 섬나라 오랑캐가 창궐하여 임금께서 파천播遷하였으니, 신하된 백성으로서 통탄스러워 살아 있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나 궁벽한 시골에서 문장만을 익히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지 못했으니 맨주먹만으로는 스스로 공을 이루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충의忠義는 타고난 본성인지라 복수하려는 뜻이 간절하니, 천지에 맹세코 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펴겠습니다...”

또한 1592년(선조 25) 12월말에 한 해가 저무는 가운데 용궁龍宮과 함창咸昌의 진중에서 적의 보루를 바라보고 비분강개하며 읊은 시에는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김해의 마음이 담겨 있다.



1. 1588년(선조 21) 金垓 白牌  
 2. 1589년(선조 22) 金垓 紅牌  
 3. 1595년(선조 28) 金垓 追贈告身  
 4. 1822년(순조 22) 金富弼 追贈教旨

용궁과 함창의 진중에서 적의 보루를 바라보고 비분강개하여 읊다.

(龍威陣中望見賊壘悲憤有吟)

외로운 등불의 旅舍에서 감옷은 차가운데, (孤燈旅舍鐵衣寒) 사람들은 오늘 밤에 한 해가 저문다고 하네.

(人道今宵歲已闌)

하루에 양쪽 귀밑머리 하얗게 더해도 (一日能添雙鬢白)

백 년에 오직 한 마디 붉은 마음만 있을 뿐이네.

(百年惟有寸心丹)

1593년(선조 26) 5월에 김해는 밀양으로 진을 옮겨 왜적을 방어하였고, 6월에 부인 진성이씨眞城李氏의 장례를 치르고 진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경주에서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1595년(선조 28)에 선조는 김해가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나라에 순절한 의로움을 생각하여 특별히 승의랑承議郎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에 추증하였다.

당시 김해의 추증문서는 예안 광산김씨 오천烏川 중가에 남아있다. 김해의 추증문서는 이전에 발급된 다른 추증교지와 달라서 『경국대전』 오품이하고신식五品以下告身式으로 발

급되었다. 즉, 문서의 발급 주체가 국왕이 아닌 이조吏曹이기 때문에 ‘교지教旨’ 대신에 ‘이조만력이십이년구월십일일봉교吏曹萬曆二十二年九月十一日奉教’로 시작하였고, 어보御寶 대신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이 답인踏印되어 있다. 이것은 김해의 마지막 관직인 정9품의 예문관검열에서 정6품의 홍문관수찬으로 추증되었기 때문에 오품이하고신으로 발급된 것이다.

김해의 추증은 법전에 수록된 규정 이외에 다양한 사유로 추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김해가 추증된 관직이 낮았지만, 의병장으로 활약한 전공은 국가적으로 공인받았다. 또한 김해가 선비로써 보여준 충의忠義와 기개氣概는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었고, 이것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서 고종은 1893년(고종 30)에 김해를 다시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하였다.

**영남의 참된 선비, 김부필의 추증**

광산김씨 외내 사람들 가운데 학문과 덕행으로 가장 추앙받던 사람은 후조당後彫堂 김부필金富弼이었다. 김부필은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적으로 이황의 인정을 받았으며, 이후 학행이 널리 알려져서 조정에서 여러 관직에 임명

하였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이렇듯 김부필은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고 덕행을 쌓는데 노력하였다.

김부필의 추증은 시호諡號를 받는 과정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1816년(순조 16)에 김부필의 시호를 요청하는 상소가 올라갔고, 시호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 예조에서 김부필을 정정正卿으로 추증할 것을 건의하였다. 김부필의 추증과 시호에 대한 조정의 논의는 몇 년간 진행되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22년(순조 22)에 순조는 김부필을 정2품 자헌대부 이조판서로 추증하였고, 3년 후인 1825년(순조 25)에 문순文純의 시호가 내려졌다.

김부필의 추증교지는 기존의 추증교지와는 다르게 연호 옆에 방서傍書한 곳에 김부필의 학문과 덕행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學問造詣 早被先正臣李滉所推許 菀爲嶠南之眞儒 而至若七月入山之哭 一生遯世之跡 與先正臣金麟厚 俱是乙巳之完人 孝陵之純臣 特施正卿之贈事承傳

학문의 조예造詣로 일찍이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의 인정을 받아 우뚝이 영남의 진유眞儒가 되었으며, 7월에 산에 들어가 통곡한 일과 일생 동안 세상을 숨어 산 종적에 있어서는

선정신 김인후金麟厚와 더불어 모두 을사(乙巳 : 乙巳土禍)의 완인完人이고 효릉(孝陵 : 仁宗)의 순신純臣이니 특별히 정정正卿의 증직을 시행하는 일로 승전承傳한다.

방서傍書의 내용은 먼저 이황으로부터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과 영남의 참된 선비인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7월에 산에 들어가 통곡한 일은 1845년 7월 1일에 인종仁宗이 승하한 이후에 매년 인종의 기일인 6월 그믐날에 안동부의 거인리居仁里 산속에 있는 부친 김연金緣의 재실에 가서 밤중에 곡하기 시작하여 새벽이 되어 돌아온 일을 말한 것이었다. 또한 조정의 부름을 마다하고 학문과 덕행에 힘쓴 김부필의 행적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정정의 증직을 시행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김해와 김부필의 추증은 2품 이상의 관원이 아닌 경우에도 나라에 귀감을 보인 선비를 추증한 사례이다. 김해는 임진왜란 때에 의병장으로 활약하여 충의忠義를 보인 선비로 추증되었고, 김부필은 학문적인 업적이나 뛰어난 덕행을 보인 선비로 추증되었다. 국가에서는 김해, 김부필과 같은 선비들을 추증하고 그 혜택을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선비로서의 충의와 학문과 덕행 등을 본받도록 하였다.

# 19세기 전주의 모습, 완산부지도

글. 정대영(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완산부지도는 실제 이름과는 다르게 전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전주가 완산으로 불린 시기는 조선 초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하지만 현재에도 완산이란 지명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주는 예로부터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전주 이씨의 고향으로 풍패지향豊沛之鄉으로 불린 곳이다. 왕실의 본향이기에 때문에 그 어느 도시보다도 격이 높았으며, 주변의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일찍이 상업이 발달하여 출판시장이 안성, 한양과 함께 가장 발전한 도시이기도 하다.



완산부지도完山府地圖 조선 19세기, 190.0×537.0cm, 보물 제1876호



완산부지도의 상세표현 모습

## 1. <완산부지도完山府地圖>의 소개

조선 시대에는 다양한 지도가 제작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 고려 시대의 지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조선 초기에 제작된 지도를 통해서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 사이 지도의 모습을 어렵게 살필 수 있게 된다. <완산부지도>는 <완산부지도10곡병풍>이라고도 불린다.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높이 190cm, 폭 537cm의 거대한 병풍이다. 지도에 담긴 내용을 분석해 보면 19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반인이 아닌 당시 집무를 위해 관아 등에서 사용된 지도로 판단된다. 조선 시대에는 다양한 병풍 지도가 제작된 바 있으나, 이 지도처럼 병풍에 지도와 지역에 대한 설명(註記)이 함께 실린 지도는 현재 이 지도가 유일하다. 이러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2015년 4월 22일 보물 제1876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완산부지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 향후 더 많은 사료가 발견된다면 그 과정과 목적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이 지도가 전라감영全羅監營 혹은 이와 유사한 국가기관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선 시대에서 지방관이 지역

에 파견되는 경우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역의 모습을 익히는 것이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의 수령은 지역에 연고가 없는 이들이 발령을 받아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지역의 지명과 지형을 익히는 것 역시 중요한 덕목이 되었던 것이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그의 저서인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수령이 고을에 부임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고을 지도를 만들어 벽에 걸어야 하는 것, 호적관계 서류를 살피는 것이라 하였다. 지리를 알고 민심을 알아야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본 완산부지도 역시 수령의 거처에 펼쳐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반적인 회화식 병풍지도와는 다르게 <완산부지도>는 좌우 1폭씩을 할애하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 내용은 1875년경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리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지리지와 고지도를 결합하여 일반 책자로 제작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거대한 크기의 병풍으로 제작된 사례는 이 지도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가게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병풍지도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세부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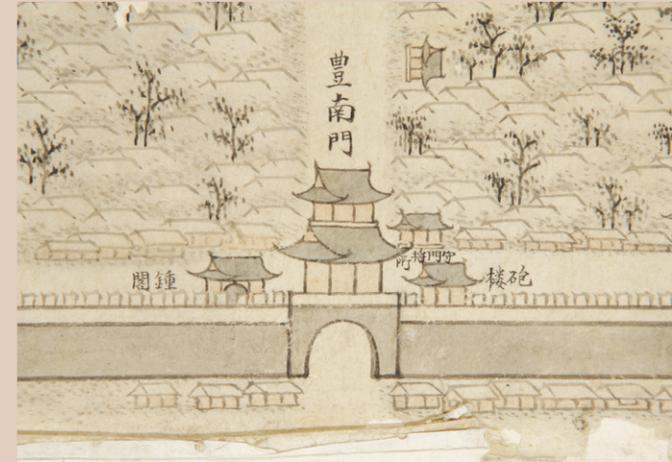
## 2 지도에서 보이는 지역의 모습들

완산부지도의 경우 산을 좌우로 길게 펼쳐지게 구성하였고 산세를 상세히 묘사하였으며, 읍성과 밖의 민가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지도와의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실제와는 다른 모양세로 과장되어 길게 좌우로 산세가 이어져 있는데, 위봉산威鳳山, 건지산乾止山 등 전주의 중요한 장소들이 각 위치를 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은

현대에 제작된 회화식 전주지도와 비교하게 되면 뚜렷이 확인되는 점이다.

완산부지도는 실제 이름과는 다르게 전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전주가 완산으로 불린 시기는 조선 초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하지만 현재에도 완산이란 지명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주는 예로부터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전주이씨의 고향으로 풍패지향豐沛之鄉으로 불린 곳이다. 왕실의 본향이기에 때문에 그 어느 도시보다도 격이 높았으며, 주변의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일찍이 상업이 발달하여 출판시장이 안성, 한양과 함께 가장 발전한 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주를 대표하는 아이콘은 대부분이 왕실과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장소들이 많다. 완산부지도에서는 이들 지역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현재 한옥마을의 인기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풍남문豐南門, 객사客舍, 경기전慶基殿의 모습은 옛 형태와 시가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 또한 읍성 외부에도 민가와 밭, 논 등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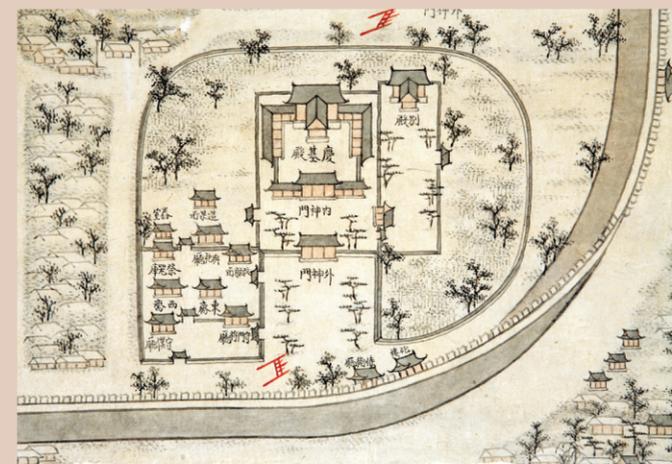
지도에 대한 설명은 지면상으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으로 직접 살펴보는 것이 지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조선은 인접 국가 가운데에서도 특기할 만큼 많은 수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이는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 생각한다. 다만 지도는 역사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를 이해해야만 온전히 그 지도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유물을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 공간, 문화의 다양한 접목을 통해서만이 그 온전한 의미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풍남문



객사



경기전

#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전

기간 | 2019. 6. 18(화) ~ 9. 15(일)  
장소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박물관 풍경

국립전주박물관은 전시에서 주로 완주의 선사·고대문화에 집중하였는데,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완주만의 특색 있는 역사 정체성에 대한 모색과 그 안에 살아있던 사람들에 대해 주목하였다. 글. 김왕국(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전주박물관은 6월 18일 전북의 역사문화전 13『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를 개막하였다. 전북의 역사문화전은 1999년 고창 전시를 시작으로 전북지역 각 지자체들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전시이다. 이번 완주전은 13번째 전시로 완주군청 및 완주문화재단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만경강 사진 공모전, 학술세미나(6월 21일), 완주 크리에이터 페어(6월 22일), 전시공간에서 현대작가와 협업 등 다양한 연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로 완주의 선사·고대문화에 집중하였는데,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완주만의 특색 있는 역사 정체성에 대한 모색과 그 안에 살아있던 사람들에 대해 주목하였다.

1부, '완주 사람들, 한반도 하이테크놀로지의 중심이 되었다.'에서는 석기를 사용하던 시대를 지나 금속이라는 신소재를 활용하여 신기술의 꽃을 피운 완주 사람들에 대해 살펴본다. 완주 상림리에서 우연히 발견된 26자루의 청동검은 완주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새로운 기술의 유입을 빠르게 수용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갈동 출토 청동검·창 거푸집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한반도 청동기 제작 기술의 실체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신봉유적의 청동투겁 방울과 전북혁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수습된 여러 점의 잔무늬청동거울은 당시 완주가 한반도 하이테크의 중심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손바닥만한 크기의 잔무늬청동거울에 새겨진 13,000~14,000여 개의 선들은 기하학적 무늬를 이루며 세련미를 뽐내고 있다. 또한 청동검·창 거푸집과 완주 갈동유적에서 나온 잔무늬청동거울은



1.

1. 완주 갈동 유적 5호 움무덤 출토 청동거울
2. 완주 상운리 유적 출토 목걸이 모음
3. 전시 설명 모습
4. 깨뜨린 토기(毀棄吐器)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었다.

2부는 '전북지역 마한의 자존심, 완주 사람들'이 주제이다. 마한은 우리나라 고대 삼국이 형성되기 전 지금의 경기·충청·호남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킨다. 2부를 구성하는 주요 유적인 완주 상운리 유적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의 마한 무덤이 한꺼번에 발견되었으며, 마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다량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철로 만들어진 칼, 창, 화살촉 등의 무기류와 도끼, 망치, 집게 등 공구류 등의 출토 수량은 어느 마한 무덤유적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6,000여점에 이르는 옥은 마한 사람들의 미적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문화재로 세공 정도는 조금 투박하지만 그 색감과 영롱함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전시장에는 상운리유적에서 수습한 대부분의 옥류가 전시되고 있어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3부, '후백제 사람들, 삼한통일의 꿈을 꾸다.'에서는 완주 봉림사지와 함께 건원왕과 후백제 사람들이 못다 이룬 꿈들을 소재로 작가들이 새롭게 해석한 현대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최근 완주 봉림사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후백제와의 관련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봉림사지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 군산 발산리 석등, 5층 석탑, 봉림사지 삼존석불은 수려한 조형미와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전시가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지역을 넘어 다시 한번 삼한통일을 꿈꾸었던 후백제 사람들의 바람을 느껴보고 봉림사지 석조 조각들의 원래 이름을 찾아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5월 22일 종료된 전시 연계 사전 행사로 만경강 사진 공모전에는 수십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그중 이호연 씨의 '아름다운 만경강'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사진 공모전 이외에 6월 21일에는 완주군청, 한국청동기학회와 함께 「만경강 유역의 고고학적 성과」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개최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배울거리로 채워졌다.

이번 전북 역사문화전 13『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는 단순히 역사와 관련된 전시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연계행사를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즐기고 느끼는 하나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다.



3.



4.

선비문화  
아카데미 이야기

# 조선 선비문화

이번 선비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180명의 선비문화 전문가가 탄생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수강생 한분 한분이 지역과 주변에 선비문화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비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강연과 아카데미를 통해 선비문화가 대중 속에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과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선비정신을 잘 발굴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정대영(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1. 선비문화 아카데미 강연 중  
2. 선비문화 아카데미 8회차 답사 - 무성서원 앞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조선 선비문화'를 중심으로 박물관 특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선비문화 관련 특별전과 선비문화실 신설, 연계 교육 등의 강좌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선의 선비문화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배워갈 수 있는 '선비문화 아카데미'는 3월 22일에서 6월 28일까지 총 8회 강좌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선비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는 사전 홍보를 진행하여 다양한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회원제로 이루어진 이번 아카데미에는 총 180명이 사전 등록을 진행하여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을 가득 채워 주어 공부에 대한 열의를 높여 주었다. 강연은 격주로 진행되었으며 1회에서 7회까지는 강연, 8회차는 답사로 진행되었다. 첫 강연은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장의 '선비처럼 퇴계처럼'이었다. 멀리 안동에서 강연을 위해 방문한 김병일 원장은 조선 선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퇴계 이황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선비정신의 모습을 설명해 주었다. 특히 선비문화수련원은 퇴계 귀향길 450주년 행사를 재현하여 서울에서 도산서원까지 13일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 산천 곳곳에 담겨있는 선비문화의 숨결을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심경호 고려대 교수는 '선비의 편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특별전 <선비, 글을 넘어 마음을 전하다>와 연계하여 우리의 옛 편지인 간찰을 주제로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진행해 주었다. 최은주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은 '선비와 일기'를 통해 선비의 사적인 공간인 일기를 살펴보고 자기성찰의 의미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산 정약용의 전문가인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다산과 하피첩'이란 주제로 정약용의 삶과 유배 생활에서도 지켜낸 선비정신의 모

습을 이들에게 남겨준 서책인 하피첩 유물과 함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범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호남의 선비들'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영남과 기호 중심으로 알려져 있던 선비의 모습을 넘어 호남의 대표 선비에 대한 계보와 일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연을 진행해 주었다. 정대영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사는 '선비와 고지도'라는 주제로 고지도를 통해 조선 시대 지도를 제작하여 나간 선비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김기현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장은 '선비정신과 오늘'의 삶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선비정신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에 대해 상세한 강의를 진행해 주었다. 마지막 8회차에는 신정일 황토현문화연구소장의 안내로 '우리 전북의 선비들'이란 주제 아래 완주와 정읍 일대의 선비문화를 답사하였다. 정여립의 거주지로 여겨지는 완주 상관 일대와 정읍 김명관 고택, 피향정, 무성서원 일대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이 지역 선비의 모습을 공간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선비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180명의 선비문화 전문가가 탄생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수강생 한분 한분이 지역과 주변에 선비문화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비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강연과 아카데미를 통해 선비문화가 대중 속에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과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선비정신을 잘 발굴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끝까지 강연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분들의 열정이 국립전주박물관 선비문화 특성화의 긍정적인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 새롭게 선보이는 전북 보물

국립전주박물관 지정문화재 특별공개

국립전주박물관은 6월 27일(목)부터 상설전시관 역사실에서 우리 관에 기탁된 개인 소장 지정문화재를 선별하여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화재 지정 제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다. 또한 국립박물관은 '문화재 기탁' 제도를 통해, 박물관 전시 및 연구에 활용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소장 지정문화재 혹은 지정문화재급 유물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개인 소장 및 전주박물관 소장 전북의 소중한 보물 6점을 엄선하여 특별 공개하는 자리다.

고령高靈 신씨申氏 종중宗中에서는 신말주(申末舟, 1429~1503) 등 열 명의 원로들을 모사한 <십로계첩十老契帖>(전북 유형문화재 제142호) 등 총 4점의 지정문화재를 박물관에 기탁하였다. 신말주는 지조 높은 선비이자 은사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부각된다. 26세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1576년 47세때 전주 부윤으로 일정 기간 관직에 몸담았으나, 대부분의 생애를 관직과 상관없는 처사로 보냈고 노년에는 순창에 귀래정歸來亭을 짓고 유유자적한 삶을 누렸다. 70세가 넘는 나이에 가까운 벗들과의 만남을 기념한 그림이 바로 십로계첩이다. 이후 18세기에 김홍도가 원본을 모사한 <십로도상첩十老圖像帖>(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이 전하여 흥미로운 비교가 된다. 남원양씨 종중에서 기탁한 「남원양씨 종중문서」(보물725호) 7점, 개인 소장 <이상길(李尙吉, 1556~1637) 초상>(보물792호) 등도 함께 전시되며, 전주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十폭병풍>(보물1876호)도 오랜만에 다시 관람객을 맞이한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북 지역 역사문화 관련 지정문화재들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며,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의 멋과 향기를 느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간 | 2019. 6. 27.(목) ~ 10. 20.(일), 장소 | 상설전시관 2층 역사실

글. 민길홍(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열 명의 노인들의 모임 十老契帖  
신말주申末舟(1429~1503), 조선 朝鮮 1499년  
개인소장 (전북유형문화재 142호)



이상길(1556~1637) 초상 李尙吉 肖像  
조선후기 南陽後期  
개인 소장 (보물792호)



양유생 문과 합격증서 楊維生文科敎旨  
고려高麗 1376년  
개인 소장 (보물 제725-2호)

## “생활 속의 박물관을 꿈꾸다”

국립전주박물관회 창립

글. 김왕국(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봄기운이 완연했던 4월 4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는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모임이 있었다. 국립전주박물관회의 시작을 알리는 창립이사회와 창립총회가 열린 것이다.

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현재 국립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전국 13개 소속 박물관 중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회를 필두로 경주, 광주, 나주, 부여 등에 설립되었는데, 이번에 국립전주박물관회가 창립된 것이다. 국립전주박물관회의 설립 취지는 국립전주박물관의 사업을 후원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어딘가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느낌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제 박물관의 모습은 많이 변하고 있다. 역사학·고고학·미술사학 관련 상설전시 및 특별 기획전시뿐 아니라 어린이 교육,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일반 시민들이 언제나 쉽게 방문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이라는 국립박물관의 운영취지에 발맞추어, 전북 지역민들이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박물관', '생활 속에 녹아드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국립전주박물관회이다.

국립전주박물관회는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창립을 준비하여, 지난 12월 박물관회 창립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최무연 예원예술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역사학계를 비롯한 음악계, 국악계, 패



선계, 교육계, 관광업계, 건축업계 등 전북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2019년 국립전주박물관회 창립총회에서는 최무연 예원예술대 미래교육연구소장을 이사장으로, 6월 현재

국립전주박물관회에는 일반회원을 포함해 총 14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회는 앞으로 국립전주박물관을 지역 문화의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우선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립전주박물관 '선비문화 아카데미'를 국립전주박물관과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각 계층별 박물관 학교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정기적인 국내의 답사를 실시하여 회원 간 상호유대 강화 및 교양을 함양하는 활동도 기획하고 있으며, 국립전주박물관의 주요 연구사업 및 특별 전시의 지원도 예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전북 문화인상' 등의 제정이나 지역 내 대학의 역사·문화 관련 인재들의 장학금 지원도 구상 중이다. 최무연 국립전주박물관회 이사장은 “생활 속의 박물관, 사람들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박물관, 역사 문화 이외에 예술도 함께하는 품격 있는 박물관으로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이날 창립이사회와 창립총회에서 밝혔다.

국립전주박물관회의 관심과 활동을 통하여 국립전주박물관이 역사와 예술·문화가 살아 숨 쉬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기를 그려보며, 국립전주박물관회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 ON

## 조선 선비문화

Joseon Seonbi Culture ON  
Jeonju National Museum Magazine

Vol 08. 2019

'온'은 '전체나 전부'의 뜻을 지닌 순우리말입니다.  
'모두'라는 뜻도 있어 박물관을 사랑하는 모두의 잡지라는  
의미와 숲의 숲의 (온전 전)에 해당하며, 한자로는 따뜻할 溫,  
평온할 穩, 쌀을 藪을 포함한 온은 (거리적 시간적으로)  
'진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